8·15 특명 '일본을 넘어라'

한국, 아시아 2위 복귀 위한 태극투혼 기대

오늘 남자 양궁 개인전 등 '금 사냥' 총력전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태극전사들이 제63회 광복절을 특별한 각오로 맞는다.

금메달 10개가 목표인 한국이 세계 톱10 수성 못지 않게 바라는 건 아시아 2위 복귀다.

아시아 2위 탈환 관건은 라이벌 일본을 넘는 것. 공교롭게도 광복절인 15일이 극일(克日)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2004년 아테네 대회까지 역대 올림픽에서 수확한 금메달은 55개로 전체 20위에 해당한다. 반면 일본은 110개로 11위에 랭크돼 있다. 한국이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2년 LA 대회에 김은배와 권태하가 일장기를 달고 남자 마라톤에 나가 6위와 9위를 했고 1936년 베를린 대회에선 손기정이 일본 대표로 금메달을 따 한국인의 저력을 만방에 과시했다.

일본에 눌려있던 한국은 1988년 서울 대회에서 금메달 12개로 일약 4위로 점프해 일본(금 4개, 은 3개, 동메달 7개) 추월에 성공했다. 올림픽 참가 56년 만에 거둔 성과였다.

이후 한국은 아시아 2위를 지켰으나 2004년 아테네 대회 때 종합 9위를 하고도 금메달 16개를 수확한 일본에 아시아 2인자 자리를 빼앗겼다. 16년 만의 패배였다.

그러나 다시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베이징에서는 상황이 역전됐다. 1964년 도쿄와 1988년 서울에 이어 아시아 대륙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아시아 2위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한국은 대회 5일째까지 금메달 6개로 종합 3위로 올라섰고 일본은 4개로 7위에 랭크돼 있다. 두 개 차이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양궁 남녀 단체전을 평정하고 '마린보이' 박태환이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작은 거인' 최민호가 남자 유도 60kg급, 진종오가 사격 50m 공기권총, 사재혁이 남자 역도 77kg급에서 값진 금메달을 수확했다.

여기에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이 우승을 예약한 역도와 두 차례 이상 화려한 발차기를 다짐한 태권도, 여자 핸드볼 등도 추가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선수단의 일본 타도 성공 여부는 광복절 전후 중반 메달 레이스에 달려 있다.

양궁은 광복절인 15일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쓸어담아 한국의 안정적인 아시아 2위 확보에 선봉장으로 나선다.

다음 날(16일)에는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에 빛나는 장미란이 가장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릴 게 유력하다. 또 '종가' 미국과 개막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낚았던 야구는 같은 날 한·일 빅매치에서 승리해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결승 패배 설욕에 나선다.

아시아 2강 굳히기는 태권전사들의 몫이다. 태권도는 대회 막바지인 21일 남자 68kg급과 여자 57kg급을 시작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국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담아 분란을 일으켰던 일본을 뛰어 넘어 아시아 스포츠 2인자 자리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사재혁 금 작전의 힘

우승 후보 中 리훙리에 동률작전

'인상 5kg內, 용상서 승부수' 적중

감독들 두뇌싸움서 극적인 역전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에서 금메달을 딴 사재혁(23·강원도청)의 우승은 말 그대도 한편의 극적인 역전 드라마이자 작전의 승리였다.

역도

지난 13일 오후 올림픽 남자 역도 77kg급 인상경기는 사재혁에게 다소 불리하게 전개됐다. 인상에서 163kg을 들어 중국 리훙리(168kg), 2위 아르메니아 게보르그 다브티안(165kg)에 이어 3위를 차지했기 때문.

사재혁은 그러나 용상에서 짜릿한 뒤집기를 차분히 준비했고 2차 시기에서 짜릿한 역전에 성공했다.

인상이 약한 사재혁으로서는 리훙리와 격차가 3~5kg 이내면 충분히 뒤집을 자신이 있던 터였다. 용상 1차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재혁과 리훙리 간 치열한 눈치 작전이 시작됐다. 사재혁과 이형근 남자대표팀 감독은 인상에서 5kg이 뒤져 있던 터라 초반에 용상에서 전세를 뒤집어 크게 앞서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무리하게 도전했다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리훙리의 신청 중량을 유심히 지켜봤다.

연습 도중 용상 208kg까지 들어 올린 적이 있는 사재혁은 고민 끝에 1차 시기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203kg을 신청했다. 5kg 앞선 리훙리가 198kg을 적어 냈기에 용상 마지막 시기까지 동률 작전을 구사해 몸무게 차로 이기겠다는 계산이었다.

신청 중량이 가벼워 먼저 플랫폼에 오른 리훙리는 1차 시기를 성공해 합계 361kg까지 기록했지만 사재혁에 쫓기는 부담을 안고 시도한 2차 시기에서는 198kg을 드는데 실패했다.

2차 시기를 놓친 리훙리는 결국 은메달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중량을 올리지 않은 채 3차 시기에서도 198kg을 재도전했고 끝내 합계 기록 366kg을 만들어냈다.

사재혁은 1차 시기 중량을 애초 203kg에서 2kg 줄어 든 201kg으로 낮췄고 어렵지 않게 성공했다. 1차 시기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사재혁은 마침내 2차 시기에서 206kg을 신청했다. 성공하면 합계 중량이 366kg으로 리훙리와 동률이 돼 그대로 금메달이 확정되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플랫폼에 오른 뒤 한 숨을 고른 사재혁은 먼저 바벨을 가슴까지 들어 올린 뒤 힘차게 기합을 넣으며 머리 위까지 번쩍 들어올렸고 승리의 여신은 사재혁의 손을 들어줬다.

장미란 내일 역도 두번째 금 도전

여자 최중량급 출전

세계신기록도 넘봐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사진)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역도에서 사재혁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장미란은 16일 베이징항공항천대학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최중량급(+75kg) 경기에 출전해 세계신기록으로 우승까지 노리고 있다.

2005년부터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달성하며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장미란이 올림픽 무대에 서기는 이번이 두 번째.

장미란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는 중국의 탕궁훙에 밀려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경험이 있던 터라 올림픽 무대에 다시 서는 그의 각오는 더욱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장미란의 우승 가능성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큰 실수만 하지 않는 다면 금메달은 떼 놓은 당상이다. 최대 라이벌 무솽솽(24·중국)이 이번 올림픽에 불참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자부 전체 7체급 가운데 쿼터 4장을 확보했는데 장미란이 출전하는 여자부 최중량급의 경우 메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끝내 포기했다.

장미란의 그나마 경쟁자로 뽑을 수 있는 상대는 지난해 국제역도연맹(IWF) 세계 랭킹 3위인 올하 코로브카(우크라이나).

하지만 코로브카의 공식 대회 합계 기록이 장미란에 무려 26kg이나 뒤져 있어 바벨 중량을 단시간 내 크게 끌어올리기 힘든 역도 종목 특성상 전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이 낮다.

■ 박태환 자유형 1,500m 메달 가능성은?

기록만 보면 '글쎄요' 지구력 키워 '좋아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사진)이 자유형 1,500m에서도 메달을 딸 수 있을까.

박태환은 2006년 말 도하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차지할 때 14분55초03으로 아시아 기록을 세웠지만 이후 한 번도 이 기록을 넘어선 적이 없다. 작년 3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예선 9위로 결승 진출이 좌절됐을 때 15분03초62로 자신의 기록보다 8초 이상 느렸다.

같은 해 8월 일본 지바에서 프레올림픽 성격으로 열린 일본국제수영대회에서 박태환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자기 기록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다.

그랜트 해켓(호주)과 마테우츠 사브리모비츠(폴란드)에 뒤진 3위로 골인한 박태환의 기록은 14분58초43. 자기 기록보다 역시 3초 이상 느린 것이다. 이후 1년 동안 박태환은 한 번도 1,500m에 나서지 않았다. 작년 11월 국제수영연맹(FINA) 경영월드컵 시리즈에서 3차례 뛰었지만 모두 쇼트코스(25m)여서 롱코스(50m) 수영장에서 열리는 올림픽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이 때문에 올해 자유형 1,500m 세계 랭킹에서 박태환은 빠져있다. 미국의 피터 밴더케이가 미국 대표선발전에서 생전 처음 뛴 이 종목에서 14분45초54를 기록하며 올해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있고, 작년 세계 대회 8위였던 에릭 벤트(미국)가 14분46초78로 2위에 올라 있다. 이 종목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그랜트 해켓(호주)은 14분48초65로 3위.

기록만 본다면 박태환이 또 하나의 메달을 목에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

박태환은 지난 10일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고, 이틀 뒤인 12일에는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까지 추가했다. 거침없이 자기 기록을 단축하며 메달까지 따낸 박태환의 추세만 본다면 1,500m에서도 메달이 기대되고 있는 것. 탄력을 받은 데다 이제는 부담도 없다. .

더구나 굳이 메달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이미 훌륭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 기록을 단축하는 것이다. 바로 4년 뒤 런던올림픽에서 자유형 200m와 400m, 1,500m 금메달을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밝혀야 한다.

박태환의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인 자유형 1,500m 예선은 15일 저녁에 시작되고, 결승은 17일 오전에 열린다.

"한국 메달 목표 수정 없다"

이연택 KOC위원장 밝혀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이 초반부터 순항하고 있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의 메달 목표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발표.

이연택 위원장은 14일 낮 중국 베이징 시내 프라임호텔 코리아하우스에 진행된 사재혁(23·강원도청)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뒤 연일 한국의 금메달 소식에 '메달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느냐'란 질문에 이 같이 대답.

박태환·이배영에 큰 관심

○…베이징올림픽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스포츠계에서 새로운 한류(韓流) 열풍을 주도.

가장 주목을 끄는 선수는 수영사를 다시 쓴 '마린보이' 박태환과 쓰러지면서도 바벨을 놓지 않는 부상 투혼을 보여준 역도 선수 이배영.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는 박태환에 대해 "가장 잘 생긴 수영선수다", "류샹보다 몇 천배 잘 생겼다", "1500m에서도 금메달을 따기를 기원한다" 등의 글들이 수천건 올라와 있고, 이배영은 중국 언론들로부터의 쇄도하는 인터뷰 요청을 받느라 분주.

마장마술 최준상 최하위

○…한국 승마 선수로는 유일하게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한 마장마술의 광주 출신 최준상(30·삼성전자승마단)이 2차 예선 진출이 무산.

출전 자체가 한국 승마의 경사로 기대를 모았던 최준상은 14일 오전 홍콩 샤틴 승마경기장에서 끝난 대회 마장마술 개인전 1차 예선 첫날 경기에서 57.333%의 점수를 얻어 출전 선수 24명 중 최하위를 기록.

역도연맹 포상계획도 없어

○…한국 역도가 남자 77kg급 사재혁이 13일 짜릿한 금메달을 들어올려 16년 만에 금맥을 잇는 경사를 맞았지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대한역도연맹이 메달 획득 선수들에 대한 포상계획조차 발표하지 않아 역도계는 허전한 분위기.

대한역도연맹은 한국신기록을 세운 선수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50만원 정도를 지급해 왔을 뿐 눈에 띌 만한 포상을 한 적이 사실상 전무해 1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재혁에 대한 구체적인 상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 오늘의 올림픽

◇15일(한국시간)

▲양궁 = 남자 개인전 결승(11시30분·올림픽그린 양궁장) ▲배드민턴 = 여자복식 결승 등(11시·베이징공과대학 체육관) ▲야구 = 한국-캐나다(19시·베이징우커송 야구장) ▲농구 = 여자부 한국-벨로루시(23시15분·베이징올림픽 농구경기장) ▲핸드볼 = 여자부 한국-브라질(11시45분·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 ▲수영 = 자유형 1,500m 예선 등(11시9분·국가아쿠아틱센터)